

## 대학교수의 방학과 재충전

심 경 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미** 국의 어느 언어학자가 “나는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냈는가(How did I spent my summer vacation)”라는 제목의 논문을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한 것이 있다고 들었다. 여름 방학 동안 산간 별장에서 가족과 지내면서 자기 딸의 언어 습득 과정을 관찰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서너 살이 되면 모국어의 언어 문법 구조를 자연스레 익혀서, 그 이전까지는 단어밖에는 내뱉지 못하던 아이가 창조적인 언어 구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 논문은 입증하였다는 것이다. 촘스키 언어학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시절에 국어학 전공의 은사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미국 대학의 교수들은 여름 휴가나 방학을 즐길 줄 안다고 생각했다. 유학 후 귀국해서 대학강단에 서고 열두 번의 여름 방학을 맞으면서, 미국의 교수들을 부러워하던 터에 ‘대학담론’에 수필을 써 달라는 부탁을 거절 못하고는, 다시 이 이야기를 떠올렸다.

어떻게 하다보니 나는 7월 중순, 1학기 학사 일정이 끝난 뒤에 이리저리한 학회에서 서너 차례나 논문을 발표해야 했고, 교육대학원의 계절 학기 수업을 8일간 집중적으로 하였으며, 중등교사 연수의 특강에 나가고 밀린 원고들을 작성해야 했다. 그렇기에 더욱 남의 나라 교수가 부러

워졌다.

그런데 며칠 전 구내 식당에서 미국 유학의 경험이 있으신 영어학 전공 교수에게 미국 교수들의 방학 활용에 대하여 물었다가 그간의 나의 동경(憧憬)이 전혀 잘못이었음을 알았다. 미국에서는 5월 중순에 학사 일정이 일단 끝나고 난 뒤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긴 방학에 들어가지만, 교수들은 짧은 휴가 기간 이외에는 전혀 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테뉴어를 받지 못한 교수들은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실기 위해 연구에 집중하여야 하고, 새 학기의 강의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테뉴어를 받은 교수라도 강의평가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역시 강의 준비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 학기 강의 분량을 미리 계획하여 강의 노트를 완전히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방학 기간중에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교수들은 우리보다 더 불쌍하다고 그 분은 덧붙이셨다.

돌이켜보면 내가 유학한 일본 경도(京都) 대학의 교수들도 미국의 교수들과 비슷하게 방학을 보낸 것 같다. 그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여름 방학내 집밖을 나오지 않고 저술에 몰두하고 강의를 준비하였고, 어떤 분은 작은 그룹으로 운영되는 독회(誦會)의 연수를

떠나 며칠씩 합숙을 하면서 밤낮 없이 집중적인 강독을 하였다. 전공의 특성상 학회에 참여하려 잠시 중국이나 구미에 나가기도 하고, 서너 날 산행(山行)을 하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교수들도 미국의 교수들이나 마찬가지로 여름을 방만하게 보내지는 않는다. 유학한 첫 해였던 1983년 여름에, 모교에서의 대학원 시절에 했던 습관대로 이곳 학교 연구실에 나갔으나, 교수들은 물론 대학원생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의아해 했던 기억이 난다.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은 연구실이 아닌 집에서, 혹은 독서회의 합숙에서 학문적인 재충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방학내 여러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8일간의 계절 학기 수업을 하며, 특강에 나가고 원고들을 작성해야 했던 나는 결코 꾸짖힐 수 없는 것인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교수들과 같지만, 여유가 없는 이유를 따져 보면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

내가 이야기 듣거나 직접 본 미국이나 일본의 교수들은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강의를 준비하여 다음 학기의 강의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임하지만, 나는 매년 그러하지를 못하였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2학기 개강이 코 앞인데, 밀린 원고를 이렇게 작성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은 남들의 평가는 차치하고 내 스스로 보기에 불만족이다. 자료를 충분히 섭렵하지 못하였고 이론 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다. 계절 학기 수업은 또 어떤가. 현직 교사들이 대부분인 수강생들을 위하여 학문적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교수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으로 숙의해야 할 사안이 많았거늘, 특강도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강의안을 방학 직전에 제출하여 달라는 해당 학교 교학실의 주문이 있었기에 마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귀중한 시간을 지리멸렬한 언사로 메울 뻔하였다. 강의를 끝나고 박수

를 받으면서 정말 무안하였다.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학회가 많고 그 학회의 학술발표대회가 방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나 토론, 혹은 단순한 참가만 한다고 해도 학회를 위해 시간을 많이 쏟아야만 한다. 나만 특별히 여러 학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내 연령층의 교수들이 대개 서너 학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 점은 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더구나 내 연구분야의 경우, 전문 연구자층이 그리 두텁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연령층의 교수들은 부득이하게 여러 학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학회는 학문적인 교류를 위해서 혹은 때로는 의형적인 '세력화'를 위해서 학술대회를 연중 서너 차례 치르게 되는데, 방학은 그러한 대회를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비슷한 연령층의 교수들 대부분은 방학 기간내 서너 차례 학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학회는 학문 정보의 교환과 학문 방법의 정치화(精緻化)를 위해 정말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학술대회가 방학 기간중에 집중되면, 각 연구자는 스스로의 학문 계획을 수립하여 밀도 있는 연구를 하는 데 지장을 받을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런데 우리 나라 대학들의 사정상 학기중에는 발표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 그 점이 우울하다. 방학 기간에는 일본의 인문과학 연구자들이 그러하듯 완전히 독자적인 연구를 행하거나, 소그룹의 전문 강독회에서 밀도 높은 협동 연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꿈일 뿐이다.

방학 기간내 이렇게 허둥지둥 지내다 보니 정작 내게 가장 소중한 가족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초등학교 4학년의 사내에는 이제 방학을 그리 기대하지 않는다. 여섯 살 딸 아이는 아빠가 좋아하는 것은 첫째가 컴퓨터라고 꾸짖는다. 비교적 늦게 결혼하여 얻은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얼마나 기뻐하였던가. 아이들을 이곳 저곳 데리고 가서

전문을 넓히고 정신 경계를 키워 보겠다고 얼마나 굳게 다짐하였던가. 그러나 가족들과 방학 때 함께 놀러간 일이라고는, 수년 전, 처가에서 주선하였기에 마치못해 혜운대로 따라가 2박 3일을 보낸 것이 유일하다. 1학기 종강 무렵에 내 눈치를 살피며 묻는 아내에게, 올 여름에는 경주와 광주의 일기도 찾아가 뵙고 춘천에 막국수도 먹으러 가자고 약속하였다. “옛날 군자들이 쉽게 말을 내뱉지 않은 것은 몸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는데 나는 일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다음 주면 초등학교 개학인데, 토요일인 오늘에도 이 글을 쓰려고 연구실로 나오고 말았다.

가족은 나의 정신적 원동력이다. 그나마 독립하여 내 집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도, 잔병치레를 하지 않은 아내와 아이들 덕이 컸다. 더운 집에서 밤마다 잠을 설치며 아내나, 오존주의보가 내려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뒹굴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미안하기 짝이 없다. 그렇거늘 방학 기간내 가족들과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다니, 이것을 두고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리 틀린 표현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번 방학에 열린 여러 학회들이 산수가 좋은 곳에서 개최되었기에, 동료나 선배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원생들과 밤하늘의 맑은 별 아래서 흥허물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함께 차를 타고 자연의 푸르른 풍광 속을 이동하면서 학문과 인간에 관해,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토론을 할 수도 있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누지는 못하였고, 또 결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나로서는 그 시간이 영혼을 맑힐 수 있는 순간일 수 있었다. 하긴, 굳이 긴 여행만이 정신적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 짧은 여행과 순간의 만남이 일생에 의미 있는 예들을 과거에서도 현재의 주변에서도 자주 본다.

조선후기 실학의 집대성자로 잘 알려진 다산 정약용은,

1820년 3월과 1823년 4월에 두 번에 걸쳐 서너 날씩 춘천 일대를 돌아본 일이 있다. 그는 춘천을 우리 상고사에서 극히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하였고, 그 지역이 곧 국가위난의 시기에 국운을 보존할 중대한 지역이라고 여겨 왔었다. 그는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 마현(馬峴)에 거처하면서 학문을 계속하였는데, 중풍으로 한 겨울을 고생하고 난 뒤 춘천으로 여행을 떠나 곡운(谷雲)의 구곡(九曲)을 돌아보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현지 답사를 통해 상고사의 체계를 독자적으로 수립하였고, 지방 행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였다. 서너 날밖에 춘천에 머물지 않았지만 짧은 여행은 그의 만년에 극히 의미있는 여행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방학 기간에 여러 학회에 참여하느라 나만의 연구 테마를 중심으로 연구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회 참여를 기회로 ‘짧은 여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것도 없을 듯하다. 학문적 체계를 정비하지도 못하였고, 밀린 원고를 작성하는 ‘숙제’는 새 학기 강의가 시작되어도 계속되겠지만, 나에게 이번 방학의 매 순간들은 어느 하나 무의미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자각하던 자각하지 않던 이번 여름 방학도 내게는 정신적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오늘은 이 원고가 끝나는 대로 일찍 귀가해서 이들의 마지막 방학날을 가족과 함께 즐기려다. **■**

#### 심경호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京都大學에서 중문학 전공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국문학과 강사와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조교수, 강원대 국문학과 조교수 등을 거쳐 현재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시로 읽은 한국사기행』, 『江華學派의 文學과 思想(1),(3)』(공저), 『茶山과 春川』, 『退溪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唐詩 읽기』(역서), 『무에서 유를 낳다: 제갈공명 평전』(역서)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18세기 말의 남인 문단”, “조선후기 산문에 나타난 虛幻과 實在의 문제” 외 다수가 있다.